



하상주보

2021년 5월 2일 (나해)

부활 제5주일

제1850호

오월은 성모 성월



제1독서

사도 9,26-31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과 30ㄱㄴ.30ㄷ-32

(◎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1요한 3,18-24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음

요한 15,1-8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성모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성모 성월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목주 기도를 드립니다. …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 성모성월)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협에서 저희를 구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복음 묵상

오늘 제2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고 권고합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은 알맹이 없는 사랑 곧 껍데기만 남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펼치면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신부님들의 강론이나 여러 신앙 강좌의 주제 또한 사랑에 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도 사랑이고 인기 많은 대중가요의 주제로도 사랑은 단골 메뉴입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더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온통 사랑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흔해 쉽게 휴지통에 버리는 휴짓조각처럼 널려 있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만 사랑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쉬이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경시되며,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사랑보다는 돈과 명예 그 밖에 많은 물질적인 것에 사랑의 자리를 양보하고 “사랑이 밥 먹여 주니?”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예수님께서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당신과 함께 머무름이 참사랑임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른다면 이 사랑은 머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신 자기 증여의 삶 곧 이타적인 삶으로 이어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신우식 토마스 신부)

전 세계 성지, 5월 한 달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위한 **묵주기도 봉헌**

“모든 교회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사도 12,5 참조)

매일 저녁 6시, 전 세계 성지가 묵주기도를 봉헌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으로 마련된 이번 묵주기도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계속된다.



전 세계를 대표해 5월 한 달간 바치는 매일 저녁 묵주기도에 참여하는 성지는 30곳이다. 이들은 “모든 교회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사도 12,5 참조)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위해 5월 한 달 묵주기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묵주기도 대장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각에서 착안했으며,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기획했다. 많은 신자와 가정, 공동체의 묵주기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0곳의 성지 외에도 전 세계의 여러 성지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바치는 5월 묵주기도는 5월 1일 토요일 교황의 기도로 시작하고 5월 31일 월요일 교황의 기도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묵주기도 봉헌은 매일 저녁 6시 교황청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오에 바티칸 시국 전임 총대리 겸 성 베드로 대성전 전임 수석사제 안젤로 코마스트리(Angelo Comastri)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바치는 정오의 묵주기도가 지난 4월 17일부터 재개된 바 있다. 코마스트리 추기경의 정오 묵주기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의 첫 확산 무렵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바티칸 뉴스」 누리집과 이탈리아 바티칸 라디오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다.

〈Michele Raviart / 번역 이재협 신부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1-04/rosario-santuari-fine-pandemia-maggio-papa.html>〉

학부모 세미나

“여러분이 고백한 예수님을 자녀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이태섭 신부,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신 분, 용서하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지금 고백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사랑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24일(토) 에 본당 친교실에서 열린 학부모 세미나에서 이태섭(요한 사도) 신부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목상을 던졌다.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로 시작한 강의에서 이 신부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해안경찰이라는 직업 때문에 집에 계신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집에 오시면 늘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사제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세례받게 되신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동해로 이사오면서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신 어머니 이야기를 전하며 어느새 부모님을 많이 닮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이 신부는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종종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집에서는 부부싸움만 하고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성당에 나가기 싫다고 말할 때 너무 안타깝다”며 “부모님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이 무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전례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예비자 환영식 "기도로 힘을 얻고 삶으로 선포하자"

- 5월 한 달을 예비자 모집 기간으로 정하고 미사 후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예비자 환영식 : 6월 6일(일) 오전 10시 미사
- 문의 : 선교부 부장 이인표 가브리엘 (703)851-2364 사무실 (703)968-3010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선포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단체장 모임 안내

- 단체장 모임 : 5월 16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친교실, 야외쉼터
- 단체별 대면 모임을 위한 사전 모임이나 단체장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일미사 참례 안내

- 주일미사에 참례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례 인원은 방역 지침에 따라 150명으로 제한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 요셉의 해

-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8일)를 맞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리며 특별 대사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 요셉의 해 안내 및 특별 대사의 은총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https://cbck.or.kr/Notice/20210030?page=3&gb=K1200>

◆ 선교를 위한 기도 ◆

-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 아멘
-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맡겨 주신 하느님 지역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 저희의 사명이 하느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임을 깨닫고 복음 선포자인 저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저희에게 선교의 은사를 내려 주소서.
- 저희는 쉬는 교우들과 비신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금 아버지께 인도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 주님께 대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미약한 저희들이오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굳은 믿음과 인내의 덕을 주시고 이 지역 사람들이 마음을 밝혀 당신 품 안으로 모여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사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선교의 수호자 성녀 테레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이민자들의 수호자 성녀 카브리니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본당 주보 성인 성 정하상 바오로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감사 미사

- 10월 3일(일) 오후 3시(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매 미사 시작 전 25주년 기도문

-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일치를 지향하며 미사 전에 본당 승격 25주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기도문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25주년 역사 기념집 원고 모집합니다

- 출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기념집 원고 모집을 당분간 지속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수필, 신앙수기, 시, 논단 및 청소년 발언대, 우리반 자랑 등 어떠한 글이라도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전영완 루카 571-217-9595

25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 공모전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집 발간을 위해 25년 추억의 사진들을 기념집에 담고자 하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성당에서 찍은 사진들, 성당 행사 활동 사진, 성당 관련 사진 등
- 접수 기간 : 4월 1일 - 5월 30일
- 참가 대상 : 성 정 바오로 성당 관련 사진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 접수 방법 :
 - ▷ 웹사이트: 온라인 등록 폼 사용
 - ▷ E-mail : 단체부 부회장 (sjh5691@gmail.com)
 - ▷ 본당에 비치된 응모함
 - ▷ 본당 사무실로 우편 접수 (Attn : 사진 공모전)
-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 **소식과 나눔 > 알림마당 > 추억의 사진 공모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주년 기념 본당 설문조사

- 설문지는 본당 설문지 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청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절이 아닌 순종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도 순종과 사랑으로 지내는 성모성월이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부활 제 5주간 : 마무리하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4월 25일(부활 제4주일)

주일헌금	\$ 3,517.00
교무금	\$ 5,940.00
교무금(신용카드)	\$ 2,130.00
감사헌금& 성소후원회	\$ 710.00
2차헌금	\$ 1,591.00
온라인 봉헌	\$ 4,607.00
합계	\$ 18,49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5월 5일(수) 오전 6:15-6:45
5월 8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 혼인성사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5월 6일(목) 오후 5:00-6:00
5월 7일(금) 저녁 8:00-9:00
5월 9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우리시대의 일곱 교황 -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우리 시대의 교황들을 만나본다.

혼인공시

- 피요한 자 : 피재호 스테파노
- 최원호 녀 : 최은혜 줄리아
- 일시 : 5월 8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번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SNS
 SPC Emmaus
 SPC Emmaus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매 미사는 15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월요일	06:00 AM
	· 10:00 AM		화요일	07:30 PM
	· 05:00 PM		수요일	11:00 AM
			목요일	06:00 AM
			금요일	07:30 PM
			토요일	06:00 AM/05:0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